

글로벌 M&A 및 해외 기술거래 활성화 기대

투자 활성화 통해 글로벌 신약 등 성과 나오기를

글_ 한울바이오파마 민창희 연구소장

최근 고령화 및 만성·노인성 질환 치료수요 증가,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제약시장 규모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동시에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비 증가, 약가인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다국적 기업의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시장 성장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의료비 절감을 통한 약가인하정책을 시행하고 의약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생산성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M&A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현황으로는 먼저 정부의 약가 추가인하정책으로 인한 제약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 도입은 국내 제네릭 업체들의 제품 출시 지연 등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적 상황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중소·벤처 제약사들의 투자재원 부족이 예상되며, 이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여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활동을 주도해 오던 연구개발 중심형 제약기업들이 투자 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제약산업의 경영환경 악화와 대부분 국내 제약기업들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동일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품 및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다. 합성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 약품 등 각 부문이 적절히 개발되어야 하며 합성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개량신약과 제네릭 약품도 재무 건전성 유지 및 성장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합성 신약이 제약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제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화 하는 것이다. 약가인하로 인한 내수 시장의 한계와 계속되는 리베이트 조사로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1987년 이후 총 29개사 91건의 기술이 26개국에 수출되었고, 17개 기업이 자체 개발 주요제품을 34개국에 수출하였으며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일부 질환군을 제외하면 신약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약 연구개발에 따르는 고위험, 고비용의 특성 및 제약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와 금융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이 확보되고 연구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유망 신약'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 예산, Venture Capital, 전용펀드를 통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전략적 해외 진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여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M&A 활성화(바이오제약사, 벤처, CMO 등)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투자 실패 원인은 주로 자금력과 투자대상에 대한 전문적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 이에 기업 수요를 고려한 전문 펀드를 조성하여 적시에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 이후 단계별 추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5년 1,512개사였던 제약기업이 2007년 380개사로 감소되었다. 당시 일본은 약가인하, 기술력 및 자금 부족 등 현재 국내 제약산업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공격적인 국내외 M&A를 거치며 세계 수준의 제약사를 탄생시켰고,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다수의 블록버스터를 개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비하면 국내 제약업계는 M&A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및 미래 경쟁력 확보와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취득 중심의 M&A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가 조성되어 내년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제약기업의 국내외 유망 기술 취득, 기업 간 M&A, 해외생산시설 인수 등에 업체당 평균 50~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통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이 비용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 못했던 글로벌 M&A 및 해외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신약 등 연구개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